



오름에서 산악자전거 질주... 훼손 가속

무분별한 라이딩 이어지면서 식생파괴 가속 법적 규제장치 미비로 단속에 한계 드러내 도 "오름종합계획에 제도적 장치 반영할 것"

자연경관이 수려한 오름에서 산악자전거로 탐방로를 질주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식생파괴와 훼손이 가속될 우려를 낳고 있으나 법적 규제장치 미비로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설 연휴기간인 지난 13일 제주 동부지역에 위치한 동거문오름에서는 산악자전거로 능선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오름의 가파른 탐방로를 따라 산악자전거가 곡예하듯 라이딩을 하면서 설 연휴를 맞아 오름을 찾은 탐방객들의 눈총을 샀다.

이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설 연휴임에도 갈 곳이 없어 가족과 함께 오름을 찾았다는 50대 김모(여)씨는 "어떻게 오름까지 산악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지 깜짝 놀랐다"며 "그렇지 않아도 송이층이 쓸려내리면서 훼손되고 있는 탐방로가 더욱 망가지는 것만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름에서 산악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탐방로 질주로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좌지역에 위치한 문석이오름을 비롯 아부오름과 연동지역의 열안지·노루손이오름 등지는 산악자전거 등의 라이

딩 장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탐방로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오름식생 파괴를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동거문오름과 이웃한 문석이오름 탐방로는 복원이 힘들 정도로 식생 훼손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식생 복원 등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문석이오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로는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오름내 출입 행위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면서 숲길탐방로와 등산로, 둘레길 같은 트레킹길 등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이 가능해졌지만 오름은 숲길에 포함이 안되면서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대한 오름 출입 제한규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따라 오름의 식생 파괴와 훼손을 막기 위해선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오름 내 출입 제한 및 단속규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오름



설 연휴 동거문오름에서 산악자전거로 질주하는 모습(사진 위)과 심각한 훼손으로 출입이 통제된 문석이오름 훼손 조사 구역. 사진=이윤형기자

은 숲길에 포함이 안돼 제도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말까지 제주도에서 오름보전종합계획을 수립중인 만큼 여기에

오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교습 중 뒤통수 때린 학원장 벌금형

제주지법, 취업제한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시 모처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9년 11월 12일 자신의 학원에서 피아노를 치던 B(9)양에게 "왜 너만 못하냐"며 손으로 B양의 이마 부위를 밀고, 손등을 강하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C(8)군에게는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소방서 '선박화재 안전대책' 추진

소방훈련·캠페인 등 전개

제주소방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선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업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할 16개 항·포구에서 발생한 선박화재는 총 7건으로, 부상자 1명과 24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원인으로 보면 전기적 요인이 57%, 부

주의 43% 순이다.

지난달 5일에도 제주시 건입동 항포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3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제주소방서는 선박화재 대비 소방훈련과 민관 합동 예방 캠페인, 어업인 간담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은 "어선 관계자 등과 협력을 강화해 선박화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사업 행정안전부 7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

제주도의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1년 7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사례가 행안부 중점 협업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협업 과제 발굴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협업과제 254개를 신청받아, 내부·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7개를 올해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제주자치도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은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최적 경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해양경찰청, 종합병원, 보건소, 의용소방대, SK텔레콤 등이 참여한다.

도는 이번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병원, 보건소, 민간기업 등)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차·오토바이 10대 흡진 중·고등학생 7명 입진

청소년들이 차량 8대와 오토바이 2대를 흡진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18)군 등 중·고등학생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서귀포시와 표선면, 성산읍 일대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 8대와 오토바이 2대를 흡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름이 떨어지면 차량을 버린 뒤 또 다른 차량을 흡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도난 당한 차량·오토바이는 모두 회수가 완료된 상황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시 오일장 살인범 "묻지마 범죄 아냐"

1심 무기징역 불복... 어제 항소심 첫 공판 "범행 동기 과장"… 내달 10일 선고 공판 예정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자신의 범행 동기가 과장됐다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정욱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모(29)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도두1동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A(39·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약 5시간 후인 31일 0시30분쯤에는 현장을 다시 찾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하려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울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어 같은 날 0시55분과 2시6분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체크카드를 편의

점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사이버머니로 돈을 탕진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며 "(강씨의 범행은)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과도한 비난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씨의 최후진술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유족·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0일 오전 10시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한라산 입·하산 시간 조정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춘절기)까지 입·하산 시간을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산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30분으로 조정되며, 하산 시간은 코스별로 최저 30분에서 최장 2시간 연장 운영된다.

코스별로 입산 시간의 경우 ▷어리목·영실코스(탐방로 입구) 오후 12시→오후 2시 ▷윗세오름 대피소

오후 1시→오후 1시30분 ▷성판악코스(진달래밭 대피소) 오후 12시→오후 12시30분 ▷관음사코스(삼각봉 대피소) 오후 12시→오후 12시30분 ▷둔내코 코스(안내소) 오전 10시→오전 10시30분 ▷어승생악코스(탐방로 입구) 오후 4시→오후 5시로 연장된다.

하산 시간은 ▷윗세오름 오후 3시→오후 4시 ▷동능정상 오후 1시30분→오후 2시 ▷남벽분기점 오후 2시→오후 2시30분이다.

강다혜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U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